

김정태 대표 강연 속기

2016/ 10/ 13 (목)

한선경: 오늘은 여러 가지로 죄송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이 생일 이시다. 생일 날 부른 게 죄송했다. 그래서 케이크를 준비했다. UN에서 사회혁신까지, 엄청 거창하다.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우리가 쓰는 언어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해주시기로 하셨다.

김정태: 곧 마흔이 다 되어 가면서 뭔가 기부를 하고 싶었다. 오늘은 여러 가지 뜻 깊은 시간인 것 같다. 내가 생각하는 소셜 이노베이터가 많이 쓰는 어휘 열 가지를 나눠보려고 한다. 소셜 이노베이션 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마다 부담스럽다. 이쪽에서 일하기 위해서 목표를 가졌던 적도 없고, 흘러 가는 대로 오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동료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의자 나르고, 짐 나르는 도움이면 하지 않는다' 라고 했다. 하지만 나에게는 여전히 사람 중심의 고민 중 하나이다. 등록 역할 하는 것, 의자 셋팅 하는 것 관심 없다고 해서 충격을 받았다.

어쩌다 보니 이 곳에 왔다. 한국 역사를 전공했다. 거북선의 기호가 학사 논문 주제였다.

열심히 졸업하고 사회에 나왔는데 IMF가 터져서 나왔더니 할 게 없어서 막막했다. 내 혈액형이 무엇일 것 같나? A형이다. 한국 사람 들만 혈액형을 물어본다. 외국의 그 어떤 사람도 나의 혈액형에 관심이 없다. 한국 사람 들은 정말 혈액형이 궁금 한 걸까? / 사람을 내가 아는 프레임에 넣기 위해서.

혈액형에 대한 어떤 편견들.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잘 못했다. 그 것이 나를 정형화 하기도 했다. 졸업 할 때쯤 정말 재미 없는 사람 중 하나 였다. 돌이켜보면 대학생 때 무엇을 할지 고민했던 학생 이었다. 26살에 학교를 졸업하고 무엇을 할까 고민했다. 그 때는 사회과학을 졸업을 해야 취업할 수 있었다. 그 때 그래서 '국제' 라는 키워드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나는 Born to be Global은 아니었다. 선교사의 자질이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중국에 가게 되었다. 노방 전도도 해봤는데 잘 못 했던 것 같다. 2002년에 사스가 중국을 휩쓸었다. 집에 가자니 여전히 백수고, 할 일은 없었다. 가만히 있자니 굉장히 지루했었다. 역사 공부 하면서 서유기에서 보았던 실크 로드를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국 시안 이라는 곳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실크로드 여행을 하면서 정말 좋았다. 역사적으로 실크로드란 단 하나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막을 가르지를 수도 있고, 초원을 갈 수도 있고. 교과서에서 실크로드란 경부선 같은 깔끔한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그렇게 멋지게 깨달은 건 아니었다. 중국에서 내 자신을 많이 발견했다. 너 꿈이 뭐야? 뭐하고 싶니?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다. 한국에 와서 국제 라는 부분을 더 파고들고 싶어서 리서치를 많이 했다. 국제 대학원 이라는 곳이 검색 됐다.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6개월간 뉴욕에 갔다. 언어를 배우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이 동의 하지는 않았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뭐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것이 위험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학생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을 돕는 NGO가 있다. 너무 너무 힘들었다. 둘이서 마주 보고 1시간을 이야기 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돈이 없어서 피자 한 조각을 먹고 수돗물을 먹었다. 공복에 코카 콜라를 마셨다.

콜라를 빈속에 마시면 취한 것처럼 영어로 수다를 떨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콜라를 마시고 영어로 이야기를 했다. 국제대학원을 졸업하면 뭔가 보일 줄 알았다. 하지만 보이지 않았다.

영어로 질문을 하는 게 싫어서 질문을 안 했다. 첫 번째 질문이 가장 힘들다.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 지대로 나올 수 있다. 웬만한 성격의 사람은 첫 번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질문 하는 것을 연습했다.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계속 질문을 했고, 3학기가 될 때 대학원 모든 수업에서 A+를 받았다, 그리고 전액 장학금을 받고 졸업했다. 그 때 깨달은 것이, 질문을 많이 하면 최대 B+를 받게 되기도 했다.

대학원 논문을 쓸 때 UN의 리더십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 UN 사무총장의 강연에 갔다. 질문 있냐고 물어봤더니 그 활발하던 참여자 들이 엄청 조용해졌다.

작은 것들이 큰 변화를 일으킨다. 사람에게 고마우면 고맙다/ 미안하면 미안합니다 하는 말을 해야 한다. 유엔에서 일 했던 5년의 과정이 참 소중한 기억 이였다. 원래 박사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 교수님은 나에게 학문의 길보다 실무의 길이 더 어울린다고 했다.

유엔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내가 정말 싫어했던 비즈니스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 비즈니스 관련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대학에서도 비즈니스 관련 된 수업도 안 들었다.

착한 MBA라는 행사를 가보았는데, 수업을 듣고 실험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출판사를 열어 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용산구청에 가서 출판사 등록을 했다.

원래는 미국의 정말 좋아하는 대학에 입학 허가가 됐다. 유엔에서 홍콩 직원들과 회식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대학원에 합격이 됐다고. 그래서 생각을 해봤다. 내가 왜 대학원에 가지? 학교나 프로그램이 시작할 때는 준비가 영성하다. 영성한 반면에 유연성이 있다.

영국의 학교에 다시 지원하게 되었다. 영성한 학교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유학이 너무 힘들어서 첫 날 기세에 놀리면 잘 못 한다고 한다. 그래서 열심히 질문을 했는데 선생

님의 질문이 더 어려웠다.

영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축구, 뮤지컬, 오페라, 워블던... 나는 4개의 프로젝트를 돌리느라 거의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 그러던 와중에 거버넌스 라는 말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배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이 좋아하면 좋다/ 싫어하면 싫다고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한다.

2014년 하반기부터 사회혁신 이라는 마켓이 형성이 되었다. 클라이언트 에게 영업을 한 건 아니지만, 기업들에게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하반기에 회사를 청산하려 했지만 그래도 버티고 버텼던 게 2015년 초였다. 지금은 당황할 정도로 많은 일감이 들어오고 있다.

사람들이 전달해 주는 이야기, 이메일 들이 큰 힘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산청에 있는 지역상생 쪽에서 일하고 있다. 리더의 입장이 서 계신데, 직원들을 고용 하셔야 하는데 갈등 관계도 있을 것이고 다른 점들이 많을 텐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지 듣고 싶다.

김정태: 감사 했던 점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나 물어보면, 원래 갖고 있던 목표가 있었다. 그런데 그 목표를 가지면 내가 괴물처럼 변했다. 그 목표를 버렸다는 점에 감사한다, 갑자기 CEO로 초대 받고 나서 했던 취임사로 나의 취약성을 먼저 공개 하였다. TED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리더가 자기 자신의 취약성을 말하고 뭔가를 시작 하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한다고 들었다.

나와 이야기 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이야기 하기 보다는, 내가 더 가까워 지고 싶은 사람과의 대화를 하고 싶어 했었다.

질문: 토목건설 쪽에 종사하는 엔지니어 이다. 물 관련 된 종사자 이다. 오늘 강연을 잘 들었다. 대표님 인생에 있어서, 기업을 운영을 함에 있어서 가장 내리기 힘들었던 결정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 순탄치 않은. 사회 혁신에 대한 키워드가 있으시다고 했는데, 대표님이 생각 하는 사회 혁신이 무엇인지. 실패 사례가 있으신지.

김정태: 인간 중심. 혁신. 나는 마음이 여린 편이라 사람을 해고 하는 순간이 가장 쉽지 않았다. 그 것도 변명일 수 있지만, 여러 명의 사람이 노사 협의를 하자며 찾아 왔다. 핵심은 '최근에 온 친구가 우리와 잘 안 맞는 것 같다, 저 친구가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나가겠다.' 라는 말 이였다. 밤을 새면서

MT를 가서 이야기 하는데 어떻게 하기가 힘들었다. 여러 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고민 끝에 한 명의 친구와 식사를 하면서 이러 이리한 사안에 대한 고민을 이야기 했는데, 그 친구가 정말 많이 공감을 해주었다. 그 친구가 새롭게 일할 곳도 연결을 해주었다. 그러면서 그 친구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이후에는 사람을 해고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게 되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다른 분이 거버넌스 리더십에 대해 말씀하셨다. 내가 MYSC를 떠났을 때 가장 큰 퍼포먼스, 성공이라고 하면. MYSC에 나 같은 리더가 나오는 것이 가장 성공적이라고 생각한다. MYSC 하면 김정태만 생각 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새로운 인물들이 계속 나오길 바란다.

한선경: 사회 혁신의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 이 이야기는 그만 하자 라는 말도 하게 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심이나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소 되길 바라는 점이 있다. 문제를 어디서 볼 것이냐? 도 있지만 자신의 버전들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게 되는 것 같다. 김정태 라는 사람의 버전의 사회 혁신에 대해 들어서 좋았다.